

# 작년 초과세수 27조 예상… 文 “자영업자 등 신속지원 강구”

기재부, 11월 누적 세수 323.4조  
12월 17.7조, 추정치 보다 7.8% ↑  
빠른 경기회복세에 세수호황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최소 2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보다 8조원 가까이 추가되면서다. 정부 추정치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할 당시 예측했던 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여기에 정부는 12월 세수를 17조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정부 추

산대로라면 11월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히면서 초과세수 규모는 26조8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추정치 19조원보다 7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

성 때는 세금이 31조6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봤다. 11월에는 여기에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치를 또 수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최소 7조8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초과세수는 정부가 2020년에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할 때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60조원 가량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 전망보다 세수가 더 걷힌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세수 호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고 정책관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강해 초과세수도 이전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법인세는 6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70조3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호세 등 자산시장 영향으로 소득세는 10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전했다. 이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지난 한 해 세수 집계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대기업, 우수 벤처에 신속·과감한 투자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상의 등 10개 회원사 정책간담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새 도입제도 예측가능성 높여달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대표자를 만나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작년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소개하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이슈, 갑을이슈, 소비자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

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동인(총수)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기업주도형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될 바란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된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최 회장의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딸기·포도 합산 수출액 1억달러 돌파

농식품부, 스타품목 육성 지원 성과

국산 딸기와 포도 합산 수출액이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품목인 딸기와 포도의 지난해 수출액이 각각 6450만달러, 3870만달러를 기록, 두 품목 합산 수출액이 1

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가 스타 품목으로 육성해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두 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저장, 유통, 마케팅, 바이어 발굴,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 적극적인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 품종 보급률을 96.4%로 높였고, 특히 수출용으로 매향, 금실, 킹스베리 등을 육성해 해외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장 특성을 고려해 싱가포르에서는 고급호텔 유명 요리사를 통해 디저트 신 메뉴로 출시했고,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한국에 관심이 높은 점을 활용, 프리미엄 매장 위주로 마케팅을 집중해 프리미엄 이미지와 수요를 확산시켰는 평가다.

/세종=한용수 기자

## 노화역전 등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화

산업부, 올 신규 연구테마 3개 선정

성공 가능성보다는 도전·혁신에 방점을 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올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022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14일 테마별 연구과제 접수를 위한 신규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알키미스트(Alchemist)란 ‘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노력이 비록 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해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서 사업 명칭을 착안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로 ‘노화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생

체모방 탄소 자원화’ 등 3개가 선정됐다. 이들 연구 테마는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넘어 기존 시장에 없애미지 않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 게임체인저 기술을 목표로 한다.

‘노화 역전’은 현재 연구가 노화가 진행될 세포를 제거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면, 알키미스트 연구에선 노화 사전 진단·예방이나 노화로 인한 질병 조기치료가 목표다.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는 HMD 등 웨어러블 기기 중심의 저해상도 입체영상에서 추후 기기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초실감 입체영상 구현을 연구과제로 삼는다.

‘생체모방 자원화’는 현행 기계적, 화학적 수단의 이산화탄소 포집 중심에서 향후 생체모방 기반 친환경 탄소 포집, 전환 및 활용에 방점을 둔 연구다.

/세종=한용수 기자

## SKT 등 15곳 ‘K-디지털플랫폼’ 선정

고용부, 선정기관 총 20곳으로 확대

SK텔레콤, 경북대학교 등 15곳이 올해 ‘K-디지털 플랫폼’ 기관으로 새로 선정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가 선정하는 K-디지털 플랫폼은 총 20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K-디지털 플랫폼 기관은 SK텔레콤, 모두의연구소(서울·대전), 엘리스(서울·부산), 성균관대·솔테스크(서울·경기 판교), 구름(경기 판교·제주), 백석대, 전남대, 경북대, 포스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삼성중공업 등 15곳이다.

K-디지털 플랫폼 선정 기관은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훈련생을 대상으

로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첫걸음(크레딧) 등 훈련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훈련생,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 선정된 K-디지털 플랫폼 기관들은 첫해 10억원, 2~5년차 5억원씩 5년간 총 30억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들 기관은 시설·장비 구축 등을 거쳐 올해 2분기부터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훈련 예정 인원은 K-디지털 트레이닝 2500명, K-디지털 크레딧 9700명, 디지털·신기술 분야 재직자 1400명 규모다.

/세종=원승일 기자